

튀르키예, AKP와 시민사회의 관계 고찰: 쿠르드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한하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초빙연구원

튀르키예는 세속민족국가로서 민주주의에 부응하는 이슬람국가이다. 친-이슬람정당인 AKP의 20년 집권으로 이슬람 정책이 우위를 점하지만 민주주의와 이슬람주의가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AKP의 정치 이슬람 아래 에르도안 5기 내각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쿠르드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AKP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보고자 하는데 이는 쿠르드 여성운동가들이 소수민족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이중의 억압을 받아온 가장 열악한 그룹이었지만 현재는 정치적 대표성을 띠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그룹으로 성장했고 무엇보다 AKP에 저항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념과 민족에 상관없이 제도권 내에서 정당과 시민사회 활동이 가능한 튀르키예의 민주적 국가 체제는 쿠르드 정당을 출현시켰고 정치운동을 통해 여성운동이 성장했으며 동시에 AKP 집권 초기 모든 여성운동을 지지한다는 정강 아래 쿠르드 여성운동은 정치운동 발전에 도움을 주면서 서로 상생하는 힘을 부여했다. 그러나 제도권 밖에서는 민족주의와 이슬람적 가치관으로 젠더 정의를 주장하는 AKP에 의해 쿠르드 여성운동은 위축당하고 있다. 이러한 AKP와 쿠르드 여성운동의 관계를 통해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길을 만들어 가는 쿠르드 여성운동의 연대와 영향력을 연구하는 것은 AKP와 시민사회 관계를 규명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정의발전당(AKP), 시민사회, 쿠르드 정치운동, 쿠르드 여성운동, 정치 이슬람, 젠더 정의

I. AKP와 시민사회의 관계 그리고 쿠르드 여성운동

튀르키예는 세속민족국가로서 민주주의에 부응하는 이슬람국가다. 현재는 친-이슬람정당인 정의발전당(Adalet ve Kalkınma Partisi: AKP)의 20년이 넘는 집권으로 이슬람 정책이 우위를 점하지만 민주주의와 이슬람주의가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AKP의 정치 이슬람 아래 레쥬프 타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총리: 2002-2014, 대통령: 2014-현재) 5기 내각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실제로 다른 어떤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공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A2A03085596).

정부보다도 AKP 집권 중에 가장 많은 수의 시민사회가 발견되고 발전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다. 권위주의의 표본인 AKP 집권 하에서 다양한 시민사회의 활동과 활약의 원인을 단순히 ‘AKP가 민주적인 정부이기 때문’이라고 답하기는 쉽지 않다. 이보다는 20년에 걸친 에르도안 정부의 시민사회를 향한 태도와 정책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표를 보면 시대에 따라 시민사회를 보는 주된 담론 유형이 변화하고 다양해짐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AKP 시대에 2010년을 기점으로 시민사회에 대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중복되지 않고 명백히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다(Keysan, 2019). 에르도안은 두 번의 총리 임기를 끝내고 세 번째 연임을 위한 선거(2011. 6. 12.)를 시작하면서 소위 숨겨둔 의도(Hidden Agenda, Takkiya)인 이슬람적 가치관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아랍의 봄 이후 10년』이란 책에서 장지향 박사는 “2011년 중동의 봄’의 아이러니: 에르도안 총리의 권력 사유화와 일인 체제 강화”라는 소제목으로 2011년 이후, 에르도안의 권위적인 태도와 정책을 표현했다(장지향, 2022: 186-194). 주변 국가의 민주화를 향한 저항의 목소리가 에르도안에게 부담으로 다가온 것은 AKP의 정치 이슬람이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모양새가 되었다.

본 글에서는 쿠르드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튀르키예 시민사회를 보고자 하는데 이는 쿠르드 여성운동가들이 소수민족으로서, 여성으로서 이중의 억압을 받아온 가장 열악한 그룹이었지만 현재는 정치적 대표성을 띠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그룹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AKP를 지지하는 많은

표 1 튀르키예의 지배적인 시민사회 담론 유형

	1980년대까지	1980-90	1990-2000	2000-10	2010-현재
억압하는	√				
자율성을 주는		√	√		
민주적인			√	√	
소통하는				√	
프로젝트 중심의				√	
권위적인					√

출처: Keysan(2019).

시민사회와는 달리 정부에 탄압받는 그룹이자 저항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쿠르드족은 튀르키예,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에 분산되어 거주하고 있는 이란계 산악 민족으로 약 3,300만 명 인구 중 가장 많은 약 1,500만~2,000만 명이 튀르키예에 거주하고 있다. 쿠르드인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곳은 튀르키예 동부이고 이곳을 쿠르드족 별칭으로 북-쿠르디스탄이라 하지만 쿠르디스탄이라는 표현은 쿠르드족이 사는 곳이라는 의미로 쿠르드족 문제에 민감하고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터키인들은 이 쿠르디스탄 지명의 사용을 금지할 정도이다. 쿠르드족이 반영된 지명조차도 부정하는 튀르키예에서 제3의 정당으로 친-쿠르드 정당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이념과 민족에 상관없이 제도권 내에서 정당과 시민사회 활동이 가능한 튀르키예의 민주적 국가 체제는 쿠르드 정당을 출현시켰고 정치운동을 통해 여성운동이 성장했으며 동시에 여성운동은 정치운동 발전에 도움을 주면서 서로 상생하는 힘을 부여했다. 무엇보다 2002년 AKP가 집권하면서 보수민주주의(Muhafazakâr demokrasi)라는 정강을 가지고 이슬람주의는 자유주의와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EU 가입을 위한 코펜하겐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여성운동을 지지한다고 선언하면서 쿠르드 여성운동은 튀르키예의 다른 여성운동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었다(한하은, 2024: 174-175). 그러나 제도권 밖에서는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이슬람적 가치관으로 젠더 정의를 주장하는 현재의 AKP에 의해 쿠르드 여성운동은 위축당하고 있다. 이러한 튀르키예의 정치·사회·문화적 배경을 통해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길을 만들어 가는 쿠르드 여성운동의 연대와 영향력을 연구함으로써 튀르키예 시민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고 한계 또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쿠르드 여성운동은 정치운동과 동일시되는 특징이 있으며 정치운동의 선두 주자로서 여성운동가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로자바 혁명’으로 알려진 국제적인 쿠르드 해방운동은 쿠르드 여성운동의 대표격으로 전 세계가 쿠르드 민족의 인권과 독립에 관심을 갖는 동력이 되고 있다. 로자바는 시리아의 쿠르드족 자치지구로 시리아의 북동부에 위치하지만 쿠르디스탄을 기준으로 보면 서쪽에 해당되는 지역이라 쿠르드어로 서쪽을 의미하는 ‘로자바’ 단어를 사용해 시리아령 쿠르디스탄을 나타낸다. 쿠르드 여성운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받

는 쿠르디스탄노동자당(Partiya Karkerên Kurdistan, PKK: 1978-1999)의 수장 압둘라 외잘란(Abdullah Öcalan: 1984-1999, 현재는 투옥)은 정치운동 초기 때에도 여성에 대한 가치관이 가부장적이고 이슬람적인 것과 반대되는 여성해방에 근접했다. ‘여성, 생명, 자유(Jin, Jîyan, Azadî)’라는 쿠르드 여성운동가들의 구호는 외잘란의 페미니즘 즉, **지니올로지(jineology)**를 구체화시킨 개념이자 중요한 결과물이다(Göksel, 2019). 무엇보다 외잘란이 1999년 투옥된 이후, 그의 오래된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스탈린주의’를 버리고 ‘민주연방주의’라는 이상적인 사회를 구상했는데 이는 페미니즘·생태학·직접민주주의를 필요로 하는 체제였다.

2005년 ‘쿠르디스탄의 민주연방주의 선언(Declaration of Democratic Federalism in Kurdistan)’을 통해 외잘란은 시리아, 이란, 이라크 및 튀르키예의 국경 너머에 있는 쿠르드족 공동체에게 민주적으로 연합하여 종교, 정치, 문화에 있어서 다원적 관용을 베풀고 환경을 보호하며 성평등을 이루자고 촉구했다. 외잘란이 장려한 이 공유 가치의 플랫폼에 ‘로자바 혁명’은 즉각 응답했다. “여성이 자유롭지 않으면 국가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하는 ‘지니올로지’는 로자바의 민주연방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지니올로지’가 서구 페미니즘보다 우월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가부장제와 실증주의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체계모니를 거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여성의 권리에만 초점을 맞춘 별도의 이념으로 취급되지 않고 사회 모든 구성원을 거버넌스 모델에 통합하기 때문이다. 가장 작은 마을을 기준으로 자치체제를 만든 로자바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는 종교·문화·민족을 넘어서는 ‘지니올로지’와 생태학을 의무적으로 학습하여 ‘로자바 혁명’ 자체가 여성해방을 상징하게 되었다 (Ali·Käser, 2022: 243-246; Ali·Tas, 2021: 2136-2138).

튀르키예 내 쿠르드 여성운동은 제도권 내에서 활동하며 ‘로자바 혁명’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튀르키예 쿠르드 여성운동 또한 PKK 외잘란의 강력한 여성해방 전선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고 정치운동과 동일시되는 특징이 있다 (Çaha, 2011). 실제로 친-쿠르드 정당은 페미니스트 정당으로 알려져 있으며 쿠르드 인구가 다수 거주하는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주목할 만하다. 여성들은 정당 내 다양한 지부들을 통해 그들만의 자치 행정 시스템을 구축했고 쿠르드 정치운동은 여성해방이라는 민주적이고 생태적인 이

념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키고 있다. 2024년 지방선거에서 11명의 여성이 시장이 되었는데 이 중 10명이 야당이고 이 중 4명이 친-쿠르드 정당인 인민평등민주당(Halkların Eşitlik ve Demokrasi Partisi: DEM Party) 출신이다. 81개 주의 11명은 아직 적은 수치로 여겨지지만 2019년 여성 시장이 4명에 그친 것에 비하면 놀라운 비약이다. 또한 922개 지역 중 여성이 64개 지역에서 승리했는데 대부분이 야당인 공화인민당(Cumhuriyet Halk Partisi: CHP)과 DEM 출신이었다. DEM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역할을 강조하며 진심을 다하고 있는데 남성 의장(Tuncer Bakırhan)과 여성 의장(Tülay Hatimoğulları Oruç)을 공동으로 두고 있을 정도이다. 튀르키예에서 쿠르드 여성은 소외된 그룹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아니다. 현재 집권정당인 정의발전당(Adalet Kalkınma Partisi: AKP)의 경계 대상이 될 정도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누구보다도 크게 내는 그룹으로 성장했다.

쿠르드 여성운동이 정치운동과 맞물려 있어 민족주의 중심의 튀르키예 여성운동과의 갈등은 불가피했지만 튀르키예-쿠르드 정치 상황에 따라 두 여성운동 그룹이 쉽게 영향을 받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즉, 평화 시기에는 연합의 퍼포먼스가 시도되기도 했고, 평화 프로세스가 무너진 시기에는 소통을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에르도안의 권위주의 정권이 20년이 넘는 이 시점, 여성운동가들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AKP의 이슬람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한 반-젠더 정치 그리고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한 쿠르드 억압 정치는 쿠르드 여성운동가들과 튀르키예 여성운동가들을 움직였다. 무엇보다 쿠르드 여성운동가들이 자신들과 함께하는 남성 동지들의 여성관에 대한 의심은 젠더 정의에 의해 튀르키예 여성운동가들과 연대하게 했다.

과거에 시민사회를 민주적으로 바라보고 지지했던 것과는 달리 현재 자신의 가치관과 역행하는 그룹을 끊임없이 탄압하는 AKP의 정책 하에서 독자적인 길을 만들어 나가는 시민사회의 형성 과정을 쿠르드 여성운동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젠더 정의를 중심으로 쿠르드인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재정의하고 투쟁하는 쿠르드 여성운동이 역사적, 정치적 배경 속에서 어떻게 성장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과정이 되겠고 또한 튀르키예 여성운동가들과의 연대의 의미를 찾음으로 튀르키예 시민사회의 발전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II. 교차하는 투쟁 그리고 성장

1. 정치운동 안에서의 여성운동

튀르키예 쿠르드 여성운동은 AKP 정책의 영향을 받기에 앞서 역사적으로 해방운동과 교차하는 투쟁으로 서로 분리되지 않고 더불어 성장했다. 여기에서는 해방운동 안에서 여성운동을 살펴봄으로써 성장의 과정을 보고자 한다.

튀르키예에서 쿠르드족의 집결지는 남동부 지역으로 이 지역의 강한 가부장적 분위기로 인해 여성에 대한 폭력과 안전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쿠르드 여성들은 정치 행동에 돌입했다. 1960년대와 70년대 당시, 튀르키예 전역에서 일어난 좌파 성향의 확산과 활발한 활동에 영향을 받아 쿠르드 여성들은 좌파 쪽 쿠르드 단체에 참여하여 남성과 함께 동지가 되었다. 당시 여성 동지들의 여성성은 완전히 무시된 채 “나의 모든 사랑은 나의 사람들이며, 모든 여성은 나의 오누이다(all of my love is my people, all women are my sisters).”라는 슬로건이 유행일 정도로 여성은 자매로 여겨지며 무성(sexless)의 동지였다(Çaha, 2011: 438-439).

1980년대 들어서는 좌우 이념의 갈등보다는 민족주의운동이 전성기에 이르면서 쿠르드족의 대표적인 사회주의 단체인 쿠르디스탄노동자당(Partiya Karkerên Kurdistan, PKK: 1978-1999)¹ 또한 쿠르드 민족해방에 더 큰 힘을 쏟게 되었다. 당시 시대적 배경 속에 젠더, 평등, 인권 등의 어떤 이슈보다도 민족주의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지금은 여성문제를 운운할 때가 아니고 민족해방을 위해 대세를 따르는 때이다.”라는 인식이 팽배했으며 이때의 쿠르드 정치운동은 가부장적이며 남성 중심의 이념과 관행을 중시하며 당연시했다(Diner·Toktaş, 2010: 47-49). 그러나 PKK의 리더였던 압둘라 외잘란(Abdullah Öcalan: 1984-1999, 현재는 투옥)의 여성관은 가부장적이고 이슬람적인 것과 반대되는 여성해방에 근접했기 때문에 당시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잘란은 여성해방

¹ 쿠르디스탄노동자당(Kurdistan Workers' Party: PKK)은 이라크 북부와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주로 활동하는 쿠르드 분리주의 집단이다. 주로 튀르키예 쿠르드족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1984년 폭력 캠페인을 시작했다. PKK의 원래 목표는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독립하여 쿠르드족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1990년대 초 PKK는 농촌 기반의 반군 활동을 넘어 도시 테러에도 참여했다.

을 민족해방만큼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여성과 함께 활동하기를 원했다. 1983년 최초로 쿠르드족 해방과 여성의 해방을 일치시켜 문서화했고 1987년 11월 1일 독일 하노버에 최초의 여성 연합회(the Kurdistan Union of Patriotic Women, Yekitiya Jinên Welatparezên Kurdistan: YJWK)를 창설했다. YJWK는 PKK의 해외지부로서 교육받은 쿠르드 여성의 무장활동을 동원하는 본부가 되었다(Göksel, 2019: 1116-1117).

1980년 중반 이후, 외잘란의 여성 정체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심화되었다. ‘여성, 생명, 자유(Jin, Jîyan, Azadî)’라는 쿠르드 여성운동가들의 구호는 외잘란의 ‘지니올로지’를 구체화시킨 개념이자 중요한 결과물이다. 이 구호는 쿠르드 민족과는 상관없이 이란과 튀르키예 및 범아랍 여성운동의 구호로도 사용되어 전 세계적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아래는 외잘란의 여성에 관한 언급을 발췌한 것이다(Ali·Käser, 2022: 212-243).

나는 항상 여성(Jin)이 삶의 전부라고 말합니다. 여성은 삶의 일부가 되는 대상이 아니라 삶에서 의도적이고 결단력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성을 생명(Jîyan)으로 부릅니다. 여성이 앞장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여러 전쟁에서 승리할 만큼 강하며 남성들도 당신을 존경합니다. 생명의 길을 인도할 만큼 강해지십시오.

쿠르디스탄에서는 여성이 생명(Jîyan)의 첫 번째 주인입니다. 우리는 여성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성은 왜 생명의 소유권을 갖지 못했을까요? 이를 막는 것은 수세기에 걸친 사회, 더 정확하게는 남성입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철거하지 않습니까?

여성 노예제는 가장 추악한 삶의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으로서 그리고 조직으로서 이러한 삶의 방식을 탈피하여 여성에게 자유(Azadî)라는 본질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깊이 있게 고민하는 데 있습니다. 여성들이여! 여성, 생명, 자유(Jin, Jîyan, Azadî)라는 마법 공식을 계속 가르치고 대표해야 합니다.

1990년대 쿠르드 정치운동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PKK가 직접 정당을 창당하지는 않았지만 정신을 같이하는 친-쿠르드 정당(the People's Labour Party: HEP)이

튀르키예에서 처음 등장하게 된다. 친-쿠르드 정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폐쇄되는 수순을 겪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정당 이름을 가지고 창당함으로써 의회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이 과정이 의미가 있는 것은 PKK의 무장투쟁과는 다른 합법적 정당을 튀르키예에서 쿠르드인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쿠르드 정치운동이 민주적이다.’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이는 친-쿠르드 정당이 성평등의 원칙을 지켜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말, PKK의 여성 회원은 30%나 되었고 1994년 창당한 인민민주당(Halkın Demokrasi Partisi: HADEP)은 2000년 자발적으로 25%를 여성의원으로 하는 튀르키예 최초의 정당이 되었다(Ali: Tas, 2021: 2142-2144).

AKP 집권 초기, AKP는 EU의 코펜하겐 규범을 전적으로 수용했는데 왜냐하면 코펜하겐 규범을 기준으로 하면 세속주의에서 소외되었던 이슬람이 개인적인 인권과 자유권으로 해석되어 세속주의 패러다임에서도 큰 충격 없이 수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EU는 소수민족문제, 여성문제, 인권문제 등을 다루면서 AKP에게 쿠르드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도록 요구했다. 2004년 EU의 요청에 따라 쿠르드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재조사하는 법안이 제정되기도 했으며, 튀르키예 국영방송인 TRT에서는 쿠르드어로 방송을 내보냈는가 하면 쿠르드어 전용 채널이 생기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AKP는 ‘여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남녀평등을 위해 일하는 여성운동가와 그들의 NGO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실제로 2007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 중 60여 명을 여성으로 공천하기도 했다. AKP의 여성운동과 여성 정치인에 대한 지지는 쿠르드 진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한하은, 2024: 175-178).

2005년 친-쿠르드 정당인 민주사회당(Demokratik Toplum Partisi: DTP)에서는 여성 비율이 40%까지 되었다. 당 내에서 여성 당원은 개인보다는 조직으로 뭉쳐 역동성 있는 주체가 되었다. 쿠르드 여성운동가들은 당에서 주는 몇몇 상징적인 여성 직책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평등을 이루거나 여성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했고 여성운동가들은 여성운동 그룹에서 자체적으로 정치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쿠르드 여성들은 이 긴 싸움에서 승리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운동가들은 기존의 일반 선거 위원회와 병행하여 여성 선거 위원회를 만들었고, 여성 지부는 자체 후보를 선정하기 시작했다. 여

성 조직은 1997년 여성위원회(Women's Committee)를 시작으로 2000년 여성분과(Women's Division)를 거쳐 2005년부터는 여성의회(Women's Assembly)로까지 발전이 이어졌다. 2009년에 폐쇄당한 민주-좌파당(Demokratik Sol Parti: DSP)은 여성 관련 부서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DSP의 남성 대비 여성 의원 비율은 다른 모든 정당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았다. 2007년 튀르키예 총선에서 총 550명의 의원 중 50명이 여성 의원으로 선출되어 전체적으로 9%의 여성과 91%의 남성 비율을 형성했는데 DSP의 경우, 21명의 의원 중 여성이 8명으로 38%의 비율을 차지하며 성평등을 실현하는 쿠르드 정당의 면모를 드러냈다(Ali-Käser, 2022: 220-221).

에르도안 총리의 권력 사유화와 일인 체제가 강화된 2011년 이후에도 친-쿠르드 정당인 인민민주당(Halkların Demokratik Partisi, HDP: 2012년 창당)은 과거 친-쿠르드 정당과 마찬가지로 페미니즘이 정당의 주요한 정신 중 하나로 여겨졌고 2015 총선에서 HDP 공천 후보자 550명 중 여성이 268명이나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쿠르드 여성들이 정치운동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치운동이 여성을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P를 이은 친-쿠르드 정당 인민평등민주당(Halkların Eşitlik ve Demokrasi Partisi: DEM Party) 또한 2024년 3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서부의 대도시에서 후보를 독자적으로 내놓았으며 DEM 출신 귤리스탄 쇠눅(Gülistan Sönük)은 동부 바트만(Batman) 주의 첫 여성 시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녀는 당선 소감으로 ‘여성, 생명, 자유(Jin, Jîyan, Azadî)’를 외치며 여성운동의 승리를 증명했다.² 위와 같이 친-쿠르드 정당은 ‘여성 친화적인(woman-friendly)’ 당으로 여겨지는 부분이다.

위에서처럼 튀르키예 쿠르드 여성운동은 제도권 내에서 즉, 정당 내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보통의 투쟁’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1990년대부터 등장한 쿠르드 무장 정치운동의 여성전투요원과 다른 모습이다. 여성전투요원의 ‘영웅적 저항’을 일상생활을 하는 여성들의 ‘보통의 투쟁’이 어떻게 공감하는지, 그리

² “Gülistan Sönük: Batman'da 'jin jîyan azadi' kazandı(귤리스탄 쇠눅: ‘여성, 생명, 자유’라는 여성운동 슬로건을 쟁취하다)”(Evrensel, 2024/04/01) <https://www.evrensel.net/haber/514728/gulistan-sonuk-batmanda-jin-jiyan-azadi-kazandi>(검색일: 2024. 6. 10.).

고 상충하는지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성전투요원과 일반의 여성운동은 다르지 않고 여성운동의 한 맥락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왜냐하면 1990년대 초기에 등장한 쿠르드 여성전투요원의 강력한 이미지가 게릴라가 되지 못하는 보통의 삶을 사는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고 용기를 주어 정치적 주체성을 구현하게 했기 때문이다. ‘보통의 투쟁’의 주체로서 여성 활동가 즉, 여성운동가가 발현한 것이다(Göksel, 2019).

또한 AKP 집권 초기, 민주적이고 소통 중심의 여성 정책이 튀르키예 쿠르드 여성운동이 산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주었다. 제도권 내 도시의 쿠르드 여성운동가들에게 산에서의 ‘영웅적 저항’은 동기부여만 될 뿐 다른 세계의 운동으로 여겨졌던 것이다(Ali-Tas, 2021: 2138-2139). 튀르키예 쿠르드 여성운동가들은 모든 폭력으로부터의 여성해방 및 여성의 가정 내 지위와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들을 정치운동 즉, 합법적인 정당과 함께 행함으로써 ‘보통의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있다.

2. 여성운동 안에서의 정치운동

튀르키예 쿠르드 여성운동은 AKP 정책의 영향을 받기에 앞서 역사적으로 해방운동과 교차하는 투쟁으로 서로 분리되지 않고 더불어 성장했다. 여기에서는 여성운동 안에서 정치운동을 살펴봄에 그 성장 과정을 보고자 한다.

1990년대부터 튀르키예 쿠르드 정치운동의 영역이 합법적 정당으로 확장되면서 여성조직에도 활동 공간이 마련되었다. 쿠르드 여성들은 정치운동에서 힘을 키우면서 성평등과 여성문제를 다룰 수 있는 자신들만의 독립적 조직을 설립할 필요를 느꼈는데 이는 단순히 민족투쟁만으로는 여성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이 기간 동안 애국여성협회(Yurtsever Kadınlar Derneği), 자유여성협회(Özgür Kadın Derneği), 디즐레여성문화원(Dicle Kadın Kültür Merkezi), 민족민주여성협회(Ulusal Demokratik Kadın Derneği, UDKD), 쿠르드여성연대(Kürt Kadın Dayanışma), 여성문제연구재단(Kadın Sorunları Araştırma Vakfı, K.Ka.DaV), 여성문화원(Kadın Kültür Evi) 등의 단체가 설립되었고, *Jujin*, *Yaşamda Özgür Kadın*, *Roza* 등과 같은 잡지가 출간되었다(Çaha, 2011: 438-443).

2000년대부터는 여성단체가 연합조직으로 활동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 또한 AKP의 여성운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인데 당시 여성운동 단체들은 여성에 대항하는 공통된 문제들에 대해 종교, 정치적 이념, 인종, 지역, 학력 등을 넘어서는 여성 결속을 위한 단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또한 이러한 취지로 단체들을 설립했다. ‘우리는 서로를 돌봐요(Birbirimize Sahip Çıkıyoruz)’라는 단체가 대표적인데 이 단체에 학계, 종교, 인종, 정치를 대표하는 여성들이 함께 참여했다. 1990년대에 분산되어 힘을 잃었던 쿠르드 여성단체들 또한 연합조직을 통해 지속 가능할 수 있었고 확장할 수 있었다. 다만 쿠르드 여성단체는 자신들끼리 연합하는 특징을 보였다. 여성단체 연합조직의 구성원들은 다수의 여성운동가들뿐 아니라 다양한 여성조직의 활동가들, 그리고 노동조합과 정당에서 온 여성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연합조직은 여성운동가들에게 여성정책에 관한 방법론과 관점을 제공하며 여성운동이 힘을 얻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지금까지 설립된 대표적인 연합조직은 민주자유여성운동(Demokratik Özgür Kadın Hareketi, DÖKH), 자유여성의회(Kongreya Jinên Azad, Özgür Kadınlar Kongresi, KJA), 자유여성운동(Tevgera Jinên Azad, Özgür Kadın Hareketi, TJA)을 들 수 있겠다 (Ali·Tas, 2021: 2140-2141). 여성운동가들의 정치적 면모는 혁명적 개념으로 전장에서 그리고 전문가적인 면모를 보이는 일상의 활동들에서 면면히 드러난다.

우선 혁명적 개념으로 정치성을 띠고 일하는 여성을 생각하자면 무기를 들고 게릴라 전투에서 영웅적 역할을 감당하는 전투여성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전통적인 여성의 정체성과 역할을 전복시키는 급진적 여성운동가로 여겨진다. 일반의 여성운동을 하는 쿠르드 여성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가족과 친구 중 직간접적으로 급진적 여성운동에 가담한 여성이 한 명 이상은 있다고 말하며 이들의 활동이 자신들의 운동에 동기부여가 된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다. 2013년 3월 8일 여성의 날, DÖKH³와 평화민주당(Baş ve Demokrasi Partisi: BDP, 당시 HDP의 우호 정당으로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페미니스트 정당) 여

³ DÖKH는 정치운동(정당)을 중심으로 한 20개 이상의 여성분과를 연합하여 우선 역할을 하는 자발적 여성연합조직으로 자체로도 독립적이지만 더 크게는 쿠르드 정치운동과 연대하며 상호협력하고 있다.



출처: <https://www.evrensel.net/haber/51317/barisin-oucusu-kadinlar-olacak>(검색일: 2024. 11. 8.).

사진 1 2013년 3월 8일 여성의 날,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는 쿠르드 여성들

성위원회의 주도로 디야르바크르(Diyarbakır), 메르신(Mersin), 우르파(Urfa), 마르딘(Mardin), 반(Van), 하카리(Hakkari), 무쉬(Muş)에서 수천 명의 여성들이 참여한 행진이 있었다. 시위 현수막과 포스터에는 전투요원부터 좌파와 우파의 여성운동가들까지 내걸었으며(사진 1 참조), 사진의 첫 번째 여성인 폴란드 출신의 사회주의자이자 여성운동가인 로사와 2013년 1월 9일 파리에서 살해당한 쿠르드 여성운동가 3명 중 한 명의 이름인 사키네라는 이름을 따와 ‘로사들로부터 사키네들까지(Rosalardan Sakinelere)’라는 문구와 함께 ‘당신의 약속은 우리의 약속, 당신의 길은 우리의 길(sözünüz sözümüz yolunuz yolumuzdur)’이라고 썼다(Göksel, 2019: 1124-1126). 쿠르드 여성운동 안에 모든 여성운동을 담겠다는 의미겠다. 디야르바크르 제1법정은 테러 방지법 10조에 따라 포스터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다. 크게 두 영역, 전쟁터와 일상생활로 나뉘어 활동하는 쿠르드 여성운동가들은 여성해방과 민족해방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행동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보통의 여성운동’의 정치적 면모를 보이는 대표적인 일상의 활동은 쿠르드인 정체성을 공고히 할 인맥을 쌓고 정치운동(정당)과 소통하는 사무적 업무를 생각할 수 있으며 시위와 캠페인을 조직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기록하는 일이 포함될 것이다. 또한 쿠르드 가족 간 갈등을 해결해주고 여

성을 대상으로 한 모든 폭력을 추적하는 등의 일들도 있겠다. 위에서 언급한 여성단체와 연합조직과 같은 여성운동 그룹 또한 정당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대표적인 여성운동 그룹으로는 Saturday Mothers(1995, 매주 토요일 정오 30분 동안 이스탄불 갈라타사라이에 모여 실종된 가족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단체로 주로 쿠르드인 피해자의 어머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 불복종의 모델로 유명), KAMER(1997, 튀르키예 동남부 23개 도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운동으로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쿠르드 여성을 위한 단체), DIKASUM(2001, 디야르바크르 중심, 쿠르드 정당 내 조직, 여성 폭력 근절 및 여성 경제 발전을 위한 지부 사무소 설립, 여성 폭력 상담 전화 및 '여성의 사회로의 첫 걸음' 프로젝트 진행), Kardelen(2014, 어머니와 아이들 보건과 심터), Selis(바트만 중심, 가정폭력과 명예살인 반대 운동), VAKAD(2004, 반 중심, 여성인권운동, LGBTI+ 옹호운동)가 있다(Göksel, 2019: 1116-1118). 쿠르드 가족과 친족 간의 여성 관련 문제에 쿠르드인들은 튀르키예 경찰이나 사법부에 도움을 청하지 않고 친-쿠르드 정당이나 정당 내 여성 조직 혹은 위의 그룹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또한 '보통의 여성운동가'의 삶의 태도를 살펴보면 가부장적 남성들이 여성운동가들을 '전통적인 여성의 틀을 깨는 여성들'로 생각하는 부정적 이미지에 경계하고 긍정적 이미지 정착을 위해 자신들의 의상, 말투, 먹는 것에도 신경을 쓰면서 쿠르드 여성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쿠르드 민족의 우월성을 선전하면서 정치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다(Göksel, 2019: 1119-1121). 쿠르드 여성해방을 위해 쿠르드 공동체를 포함하여 튀르키예와 국제사회도 설득해야 한다는 이들의 큰 부담과 굳은 의지가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다.

쿠르드 최초 여성운동 잡지인 *Roza*(1996.03, 1호-2000.06, 17호)의 내용 또한 살펴보면 쿠르드 정당으로부터 독립된 입장이었지만 내용의 반은 여성문제에 관한 것으로, 반은 민족 정체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Roza*를 만드는 여성운동가들은 쿠르드 여성에 대한 억압은 성차별과 인종차별을 함께 다루어야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가부장제에 의해 규정된 성차별적 문제만을 들여다보면 쿠르드 민족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동시에 인종차별적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 또한 쿠르드 여성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Çaha, 2011: 441-443).

쿠르드 여성운동은 여성운동으로만 그칠 수 없는 정치적 현실을 마주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쿠르드 여성운동의 정치성은 민족 정체성을 찾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아주 세밀하고 치밀하게 역할을 하며 열매들을 맺고 있다. 쿠르드 정치운동의 패러다임 또한 여성해방 관점과 연결되어 있다. 대표적인 쿠르드 여성단체 KJA는 체계화된 사회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회변화는 여성해방에 달려 있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지역의 마을을 중심으로 공공기관(동사무소, 구청 등)과 함께 연대하며 다른 여성단체인 TJA와도 연합하여 활동하고 있다 (Ali·Tas, 2021: 2138-2142).

1999년 외갈란의 체포와 PKK의 휴전 선언 이후 쿠르드 정치운동과 튀르키예 간의 여러 차례의 평화 시도가 있었고 이후 몇 년 동안, 특히 2009년과 2015년 사이에 다양한 수준의 성공을 거둔 여러 평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시기에 쿠르드 여성운동 또한 튀르키예 여성운동과 넓은 관계와 동맹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었다(Diner·Toktaş, 2010: 49-50). 이런 맥락에서 새롭게 조직된 그룹으로는 ‘평화를 위한 여성 이니셔티브(Barış İçin Kadın Girişimi, BİKG)’와 협상 및 해결 중심의 ‘여성자유의회(Kadın Özgürlük Meclisi, KÖM)’를 들 수 있겠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족해방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지닌 쿠르드 여성운동가들에게 튀르키예 여성운동가들과의 연합은 어려운 문제였다. 쿠르드 여성운동가들은 ‘연합회의(شطرت 대회, Sığnaklar Kurultayı)’⁴에서 튀르키예 여성운동가들과 토론을 하다가 철수할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Göksel, 2018). 그나마도 2015년 이후에는 평화와 해결을 위한 공동의 장이 크게 분산되어 연대는 시도조차 못했다.

III. 연대하는 투쟁 그리고 희망

2022년 12월 23일 파리에서 쿠르드 여성운동가 3명이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2013년에도 쿠르드 여성운동가 3명이 파리에서 살해되었다. 두 사건 모두

⁴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중요한 연합회의 중 하나로 주요 의제는 여성과 아동을 위한 쉼터 설립과 제공을 골자로 한다. 1998년 이스탄불에서 시작하여 매년 다른 지역에서 회의를 진행, 2024년에는 양카라에서 주재하였다.

튀르키예 정부와 관련이 있다고 여성운동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쿠르드 여성운동에 대한 튀르키예 정부의 탄압이 가시화되고 있다.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튀르키예 남동부 쿠르드족 도시의 주민들이 터키군에 포위되어 3,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최소 35만 5,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대규모 파괴를 겪은 기간) 죽은 쿠르드족 여성 전투요원의 알몸 시체를 찍은 사진을 전시하는 것은 터키군의 관행으로 이는 시체가 군인이 아닌 여성이라는 끔찍한 의미를 담고 있다(MERIP, 2023/09/21).

현재 이 시점에도 시리아 북부 및 동부 민주 자치 정부(Autonomous Administration of North and East Syria: AANES) 즉, 로자바로 불리는 지역 중 튀르키예가 점령한 아프린(Afrin) 및 텔아비야드(Tell Abyad, Girê Spî)에서 여성들이 매일 폭력에 노출된 실정인데 주요 가해자가 에르도안이 이끄는 터키군이다(Ali·Tas, 2021: 2142-2145). 에르도안은 시리아 북동부 자치 정부의 성공적인 시행이 튀르키예 남동부의 쿠르드인 사이에서 비슷한 열망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터키군이 점령하고 있는 시리아 지역에 튀르키예 정부는 강제 이주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주목적은 이주민들을 그 지역에 정착시켜 인구학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과거 90%였던 쿠르드족은 오늘날 25%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주 정책은 여성을 폭력에 쉽게 노출시켰다. 점령이 시작된 이래로 여성의 납치 보고는 계속되고 있다. 아프린 지역에서만 2018년 이후 250건이 넘는 사례가 보고됐다. 그들은 자녀와 헤어지고, 강간과 고문을 당하고, 다른 지역으로 끌려가 노예로 팔린다(IGG, 2023/01/22). 여성들이 감옥에서 체포되고 고문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2024년 초 튀르키예에서 사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납치된 여성 8명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2명이 사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곳에 의도적으로 정착한 용병들은 대부분 급진 이슬람주의자들로 이들은 가부장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사상을 퍼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다. 이들에게 여성의 자유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샤리아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 결과 점령지 여성들은 실생활에서 고립되어 억압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튀르키예에는 쿠르드 여성들, 특히 여성운동가들을 표적으로 삼아 위협을 가하는데 튀르키예에는 왜 여성을 그토록 경계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로자바에 있는 Kongra Star 여성운동 대표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FILIA, 2024/03/08).

로자바 혁명과 시리아 북부와 동부의 민주적 연합사회 모델이 성공했고 전 세계의 다른 운동과 투쟁에 영감을 줄 수 있는 본보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자바의 여성들은 알려진 것처럼 가장 강력한 테러 조직인 이슬람 국가(IS)와 싸웠고 IS의 마지막 거점에서 군사적으로 이슬람 국가를 물리쳤습니다. 튀르키예는 여성을 표적으로 삼아 IS를 대신해 보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성의 의지를 무너뜨리고 자유의지로 이룩한 성과를 파괴하고 싶을 것입니다. 튀르키예는 시리아 북부와 동부 로자바의 여성들이 시리아 전체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시리아 북부와 동부의 다양한 인종 및 종교 공동체 사이에 평화로운 공존과 적을 향한 투쟁의 가치를 확립하는 데 있어 여성의 중요성을 튀르키예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워싱턴 DC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항의하던 중 수십 명의 시위자들이 최소 24명의 보안 요원과 에르도안 지지자들에 의해 구타당하는 일이 있었다. 에르도안이 이 상황을 직접 지켜보는 장면도 촬영되었는데 시위대는 시리아의 터키군 점령지에서의 인권유린을 폭로하고자 하는 쿠르드 정치운동가들과 여성운동가들이었다. 시위자의 다수는 미국 시민이 아니었지만 이 사건은 미국에 알려지게 되었고 주목을 받게 되었다. 특별히 존 매케인(John McCain) 상원의원이 미국에서 튀르키예 대사를 쫓아내야 한다고까지 언급하며 적극적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MERIP, 2023/09/21).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2015년 이후, 튀르키예와 쿠르드족 간의 평화 프로세스가 붕괴되고 쿠르드족의 정치 및 시민사회에 대한 극심한 탄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튀르키예 여성운동가들 사이에서 쿠르드 인권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며 무엇보다 쿠르드 여성운동가들과 젠더 정의를 가지고 서로 연합할 수 있었다. 튀르키예의 많은 지식인들과 여성운동가들은 쿠르드 평화를 주요 의제로 삼으면서 특별히 쿠르드 여성문제를 화두에 두었다. 튀르키예 여성운동가들은 ‘전쟁은 성 불평등을 덮어버리는 담요와 같다’고 외치며 쿠르드와 튀르키예 인권운동가들과 여성운동가들의 연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쿠르드와 튀르키예 운동가들 모두 ‘국가-평화 구축’과 ‘젠더-정의 성립’ 과정에 투쟁의 교차성 즉, 정치운동과 여성운동의 관계성을 인정하고 강조하고 있다. 이제는 튀르키예-쿠르드 갈등이 만들어진 깊은 민족적, 국가적 분열을 연결하는 매개로 여성인권이 부각되고 있다. 쿠

르드와 튀르키예 여성운동가들은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여성해방 비전과 여성문제 전략을 설명하는 새로운 관점과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가장 대표적인 여성단체는 보라연대(Mor Dayanışma)로 2013년 안타키아(Antakya)에서 ‘낙태 문제’로 조그맣게 시작되었지만 2016년부터 튀르키예 전역으로 확장되었다. 이들은 ‘문제는 명백하고 해결은 연대에 있다(Sorunlar Ortada Çözüm Dayanışmada)’라는 구호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024년 1월 14일 이스탄불 소재 가자네 박물관(Müze Gazhane)에서 6개국 여성 대표와 전국의 여성운동가 수백 명이 참가한 ‘가부장적 자본주의 위기 속 국제 페미니스트 투쟁의 경험’이라는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언론은 여기에 참석한 여성들이 쿠르드 독립운동에 함께하고 있다고 편파적인 보도를 했다. 쿠르드 여성운동 단체 TJA 그리고 보라연대는 *Akşam* 신문에 대한 반박 보도와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신문의 ‘PKK의 자유-여성운동에 대한 작전(PKK'nin Özgür Kadın Hareketine Operasyon)’이라는 기사에 대한 철회 성명도 발표했다. TJA는 자율적인 조직으로 쿠르드 여성해방 투쟁을 수행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맞서 싸우며 전 세계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는 활동을 하지만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았다는 의견과 함께 언론이 자신들의 단체를 범죄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⁵ 보라연대의 여성운동가 디다르 굴(Didar Gül)은 단체 홈페이지에 “연대의 다리(dayanışma köprüleri)는 투쟁의 역사 속에서 항상 만들어져 왔습니다. 과거의 유산을 이어가는 페미니스트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매애와 동지애의 다리를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연대의 의지를 불태웠고 2024년 7월 7일과 8일, 쿠르드 여성운동의 중심지인 하카리(Hakkari)와 반(van)에 이스탄불, 이즈미르, 앙카라에서 온 튀르키예 여성운동가들과 함께 나누었던 의견과 사진들을 남기기도 했다.⁶

⁵ “TJA ve Mor Dayanışma’dan Akşam Gazetesi’ne teklip(TJA와 보라연대의 *Akşam* 신문에 반박)”(bianet, 2024/01/18). <https://bianet.org/haber/tja-ve-mor-dayanismadan-aksam-gazetesi-ne-teklip-290707>(검색일: 2024. 11. 8.).

⁶ Didar Gül, “Hakkâri’den Yükselen Ses; Feminist Yoldaşlık(하카리로부터 들려오는 큰 소리; 페미니스트 동지애)”(Mor Dayanışma, 2024/07/14). <https://www.mordayanisma.org/2024/07/14/hakkariden-yukselen-ses-feminist-yoldaslik>(검색일: 2024. 11. 8.).

또한 튀르키예 정치 상황에서도 여성운동가들을 연합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모든 폭력에서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스탄불 협약(Istanbul Convention)’에서 2021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튀르키예가 탈퇴국이 된 것이다. 이 국제협약은 2011년 튀르키예 여성운동가들이 호스트가 되어 이스탄불에서 유럽 45개국과 협약을 맺은 국가적 행사였다. 튀르키예가 이 국제협약에서 탈퇴하자 모든 여성운동가들과 시민들은 모두 길에 나와 튀르키예 여성의 위상과 권리를 친-이슬람정당 AKP와 에르도안이 훔쳐갔다며 탄식했다.

AKP가 2023년 대선에서 젠더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젠더 이데올로기’는 주요한 의제로 떠올랐다. 에르도안은 2011년 ‘여성가족부(Kadın ve Aileden Sorumlu Devlet Bakanlığı)’를 ‘가족사회부(Aile Sosyal Hizmetler Bakanlığı)’로 명칭을 바꾸면서 여성 정체성을 아이를 낳고 기르는 가정 내 어머니 역할로 공식적으로 규정했다. 여자는 아이를 3명 이상 낳고 키우는 것이 애국이라는 언급을 가는 곳마다 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모든 여성을 향한 폭력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이스탄불 협약’에서 탈퇴하고, 튀르키예의 유일한 여성 보호 법안인 법률 제6284호를 폐지하려는 등 AKP와 에르도안의 이슬람 가치에 기반을 둔 여성 정책과 태도에 야당은 젠더 정의로 공격하고 여당은 방어하는 갈등을 보였다(한하은, 2024: 184-195).

튀르키예에서 ‘젠더 이데올로기’는 과거 낯선 용어였는데 이제 이 용어는 사회를 분열시키고 여성의 인권과 지위를 퇴보시키는 부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별히 자유정당(HÜDA-PAR)이라는 극-이슬람주의 쿠르드 정당이 AKP에 연합하고 있어서 에르도안의 2023년 대선 승리 여부와 여성문제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게 되었다. 에르도안은 선거운동에서 야당을 LGBTI+로 낙인찍고 비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Zihnioğlu, 2024: 37-44). 4월 22일 쿠르드인이 대부분인 가지안테프 지방에서 열린 선거 집회에서 그는 “총선을 치르는 5월 14일은 LGBTI+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날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내무부 장관 솔레이만 소이루(Süleyman Soylu, Türkiye İçişleri Bakanı, 2016. 8. 31.~2023. 6. 4.) 또한 LGBTI+ 커뮤니티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야권을 ‘무지개 테이블’이라며 비방했다.⁷ 위

⁷ “Seçim sürecinde LGBTI+lara yönelik siyasi söylemlerin devletin tüm kurumlarında etkisi

와 같은 이유로 여성운동가들은 5월 14일, 28일 두 번에 걸친 대통령 선거는 이 나라의 성평등과 민주주의를 결정짓는 순간이라고 여겼다. 여성운동가들과 많은 여성들의 바람에도 에르도안은 5월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대표인 케말 클르츠다르오올루(Kemal Kılıçdaroğlu)에게 4.36% 차로 승리하였다.

쿠르드 여성운동가들이 AKP의 반-젠더 정책과 공약에 불만을 품고 튀르키예 여성운동가들과 성평등에 대한 목소리를 함께 높이게 되었다. 쿠르드 여성들에게 AKP 반-젠더 정책 중 가장 직접적이고 큰 위협은 ‘카움(kayyum)’으로 불리는 남성 정치인들인데 이들은 시장 혹은 도지사, 군수가 범죄로 인해 부재할 때 정부로부터 수탁자로 임명받은 사람들이다. 지난 세 번의 지방선거에서 친-쿠르드 정당이 우세한 지역은 여지없이 카움이 임명되었다. 2016년 95명의 카움이, 2019년에는 48명이 임명되었는데 대부분의 카움 임명의 원인은 선출된 쿠르드 정치인들이 테러 조직과 연관되어 있다는 죄명으로 감옥에 가기 때문이다. 이들은 여성 센터를 예식장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여대생들의 기숙사를 게스트하우스로 바꾸는 등 페미니즘의 반대 투쟁으로 여성의 공간과 권리, 삶을 공격하고 있다.⁸ 특별히 2024년 지방선거 이후, 쿠르드 민족의 거점지인 남동부에서 여성들의 승리가 두드러지자 카움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여성단체와 쉼터를 공격하고 여성 직원을 해고하는 등의 반-젠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반(Van) 주의 게바쉬(Gevaş)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승리한 친-쿠르드 정당 BDP 출신 큐브라 악트(Kübra Akti)는 “지자체에는 여성 화장실조차 없었다.”라고 말하며 남성 중심의 정치 현실을 밝혔다. 또한 하카리(Hakkâri)뿐 아니라 카움이 임명된 지역의 여성들은 외출할 때마다 군인, 경찰, 특공대원들의 괴롭힘(성추행)으로 외출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렸다.⁹

olacak’(선거 과정에서 LGBTI+에 대한 정치적 발언들이 국가의 모든 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euronews, 2023/05/11). <https://tr.euronews.com/2023/05/11/secim-surecinde-lgbtilararayonelik-siyasi-soylemlerin-devletin-tum-kurumlarinda-etkisi-olac>(검색일: 2024. 6. 10.).

⁸ Hicran Urun, “Kadın mücadelesine vurulmuş bir ket; Kayyumlar(여성들의 투쟁에 대한 억압: 카움들)”(Jin Dergi, 2021/09/14), <https://jinderji.com/dosya/kadin-mucadelesine-vurulmus-bir-ket-kayyumlar/>(검색일: 2024. 11. 12.).

⁹ Didar Gül, “Hakkâri’den Yükselen Ses; Feminist Yoldaşlık(하카리로부터 들려오는 큰 소리; 페미니스트 동지애)”(Mor Dayanışma, 2024/07/14), <https://www.mordayanisma.org/2024/07/14/>

이스탄불 소재 문화예술센터(Dr. Kadir Topbaş Kültür Sanat Merkezi)에서 ‘우리는 희망으로 견고, 반항으로 성장하고, 저항으로 승리한다’는 슬로건으로 제13차 인민민주회의(HDK, Halkların Demokratik Kongresi)¹⁰ 여성회의가 있었다. 여러 정당과 여성단체 대표들의 연설로 회의는 이루어졌다. 여기에 참석한 사회주의여성회의(SKİM, Sosyalist Kadın Meclisleri) 대변인인 탄야 카라(Tanya Kara)는 “우리는 팔레스타인과 로자바, 전 세계에서 저항하는 여성들의 투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성 지배는 여성, 이민자, 성소수자에 대한 적대감을 조직화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투쟁을 분열시키려 하지만 우리는 계속 행진할 것입니다. 공동의 투쟁이 중요한 시점입니다.”라고 말하며 권위주의 튀르키예 정부를 겨냥했다. 사회주의 재건당(SYKP)의 공동의장 페리데 메르토올루(Feride Mertöglü)는 “이 사회는 여성 혐오가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는 파시즘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노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튀르키예에서는 쿠르드족 자유운동, 사회주의 여성운동, 다른 여성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운동은 다른 운동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연설했다. 쿠르드 출신 튀르키예 국회의원인 세바하트 툰젤(Sebahat Tuncel)은 “자유를 위한 투쟁은 여성의 자유를 외치며 일어날 것입니다. 이 제도(카뮈)에 대해 ‘멈춰라’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은 함께 모여야 합니다.”라고 튀르키예 사회와 여성운동가들에게 외쳤다.¹¹

아래는 익명의 튀르키예 여성운동가의 말이다(MERIP, 2023/09/21).

계속되는 투쟁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쿠르드 여성운동가들의 성과는 상당하고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대표성과 내용 측면에서 쿠르드 정치운동의 중심에 여성

hakkariden-yukselen-ses-feminist-yoldaslik(검색일: 2024. 11. 8.).

¹⁰ 인민민주회의(Halkların Demokratik Kongresi: HDK)는 쿠르드 문제를 중심으로 튀르키예의 여러 좌익 정치운동, 조직 및 정당의 연합으로 튀르키예 정치를 근본적으로 재창조하고 민족, 종교 또는 성적 차별에 직면하여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개인을 대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의회는 반자본주의적이며 2011년 10월 15일에 결성되었다. 이 의회는 수많은 컨퍼런스를 조직하고 공식 대회를 개최한다. 2012년에 이 의회는 정치적 지부 역할을 할 새로운 정당인 친-쿠르드 정당 인민민주당(HDP)을 창당하기도 했다.

¹¹ “Tuncel: Systeme ‘dur’ demek isteyenler yan yana gelmeli(툰젤: 정책에 ‘그만’이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은 연대해야 한다)”(Politika, 2024/11/02), <https://politikahaber.com/tuncel-sisteme-dur-demek-isteyenler-yan-yana-gelmeli/>(검색일: 2024. 11. 9.).

과 성평등은 확고히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여성지부, 위원회, 조직, 잡지 및 웹사이트를 설립했습니다. 쿠르드 여성운동은 튀르키예의 권위주의적인 정권에 도전하는 최전선에 서서 튀르키예 내 쿠르드 공동체의 곤경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쿠르드 여성운동가들은 또한 무지했던 케말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튀르키예 여성운동을 변혁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특히 젊은 튀르키예 여성운동가들은 쿠르드 여성운동가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으며, 그 결과 우리의 페미니즘이 훨씬 더 교차적으로 다른 말로 입체적으로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쿠르드 정치운동을 주도하는 남성들의 성평등 의식에 대한 불신도 쿠르드 여성운동가들을 튀르키예 여성운동가들과 연대하게 했다. 아래는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의 가장 큰 여성운동 그룹인 KAMER 소속 여성운동가와의 인터뷰 내용이다(MERIP, 2023/09/21).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증가한다고 해서 튀르키예와 쿠르드 사회 내에서 자동적으로 성평등과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달 20명에서 30명의 여성이 튀르키예에서 살해당합니다. 국가 폭력은 가정 폭력의 중요한 기여 요인입니다. 남성들은 국가의 권위적인 태도와 신체적 폭력을 답습합니다. 우리의 남성 동지들도 국가의 권력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내 거의 모든 남성이 가정에서 아내와 딸과 문제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진보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아내와 딸은 우리에게 와서 집에서 보이는 그들의 언어적·신체적 폭력성에 대해 토로합니다. 우리는 여성문제에 대한 지원은 오직 여성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변화를 이룰 것입니다. 튀르키예가 매우 가부장적이라는 것과 튀르키예뿐 아니라 쿠르드 인구의 70에서 80%가 매우 보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쿠르드 정치운동 내에서 성평등 의제와는 달리 성과 성적 자유의 문제는 여전히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보수주의는 여성에 대한 폭력적 통제로 이어지며 '성 없는 전투원'이라는 도덕적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쿠르드족 내 지워지지 않는 가부장적 잔재뿐 아니라 에르도안의 반-젠더 정치 그리고 민족주의에 의거한 쿠르드 탄압 정치는 과거 연합하지 못했던 두 그

를 튀르키예-쿠르드 여성운동가들을 연대하게 했다.

IV. 쿠르드 여성운동의 영향력

과거 시민사회의 주체는 공적인 삶에서 제외된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었고 그래서 시민사회와 페미니즘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의견이 학계의 주된 의견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오히려 시민사회는 여성들에게 사회의 주요 의제들을 성공적으로 도전하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었고 여성운동은 이 경쟁의 장에서 즉, 시민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시민사회는 여성들뿐 아니라 약자 그룹에게 자신들의 소리를 낼 수 있게 하였는데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튀르키예 쿠르드 여성운동임을 본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무대가 AKP의 집권 초기 시민사회를 지지한다는 민주적 태도 위에 세워졌음을 볼 수 있었다. 쿠르드 여성은 소수민족과 여성이라는 이중의 소외된 그룹이었지만 시민사회라는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쿠르드 정치운동과 여성운동은 서로 상생하는 구조로 잘 정착하였으며 집권 초기 때와는 다르게 권위주의 정부로 변한 AKP에 대항하여 튀르키예 여성운동가들과 연대하며 힘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이번 2024년 지방선거를 통해 쿠르드 여성운동가들의 힘은 다시금 확실시되었다.

2024년 바트만에서 시장으로 당선된 쿠르드 여성운동가이자 정치인인 쇠늑은 이번 선거의 승리가 개인의 승리가 아닌 쿠르드 여성 그리고 튀르키예 여성 모두의 승리라고 외쳤다.¹²

선거 과정에서 제가 소속된 당 DEM과 저는 튀르키예의 많은 정당으로부터 그리고 여성운동 그룹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선거 이후, 튀르키예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모든 여성운동 그룹으로부터 축하인사를 받았습니다. AKP의 가부장적 정

¹² Burcu Karakas, "Turkey gains new wave of female mayors after opposition's poll success" (Reuters, 2024/04/04), <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turkey-gains-new-wave-female-mayors-after-oppositions-poll-success-2024-04-03/>(검색일: 2024. 6. 13.).

책들은 모든 여성의 업적을 하나하나 파괴했습니다. ‘이스탄불 협약’ 파기는 하룻밤 사이에 탈퇴국을 만들고, 쿠르드 대표 여성운동 그룹인 Seslis를 폐쇄시키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반-젠더 정책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중의 차별을 받는 쿠르드 여성에게 훨씬 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튀르키예 여성운동가들의 저를 향한 응원은 쿠르드 여성을 응원하는 손짓으로 확신했습니다. 우리 당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정부가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운동 그룹을 폐쇄하려 한다면 정부는 우리와 싸울 뿐 아니라 튀르키예 모든 여성들을 상대로 싸우게 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에서 쇠늑 시장이 밝힌 바와 같이 쿠르드 여성운동가들은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게 되었다. 위의 쇠늑 시장처럼 쿠르드 여성운동가는 정치적 대표성을 쟁취한 성공한 여성으로 여겨진다. 물론 쿠르드 정치운동 내 남성 동지들 안에서도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는 가부장적 전통과 문화는 여성운동가들에게 넘지 못할 벽처럼 굳건하고, 또한 정치운동과 여성운동에서 보이는 여성운동가들의 주체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가정과 마을에서 보이는 쿠르드 여성들의 수동적인 이중의 삶은 분명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해방의 이념을 바탕으로 여성들이 스스로 교육하고 지식을 습득하며, 지금도 이를 사회에 알리고 지식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그래서 더 큰 의미가 있겠다. 아래는 쇠늑의 정책 발표 중 일부이다.¹³

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컨퍼런스 홀에서 강의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지역 사회의 노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성들이 자신의 법적, 사회적 권리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동네를 직접 찾아가는 부서를 만들 것입니다. 심리학자, 사회학자, 교육자,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모바일 팀을 구성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가족들의 문제와 필요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해결책을 제공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¹³ Evrim Deniz, “DEM Party’s mayor lauds co-mayoral model as win for all women of Turkey”(Duvar, 2024/04/18), <https://www.duvarenglish.com/dem-partys-mayor-lauds-co-mayoral-model-as-win-for-all-women-of-turkey-news-64222>(검색일: 2024. 6. 13.).



출처: <https://www.duvarenglish.com/dem-partys-mayor-lauds-co-mayoral-model-as-win-for-all-women-of-turkey-news-64222>(검색일: 2024. 6. 10.).

사진 2 당선 이후 지지자들과 함께 셀피를 찍는 귤리스탄 쇠눅

물론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여성운동에 대한 보수주의 남성들의 탄압 또한 더욱 거세지고 있다. 커져가는 여성들의 투쟁을 막기 위해 ‘여성, 생명, 자유(Jin, Jîyan, Azadî)’라는 구호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의 작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모든 노력에 맞서 쿠르드 여성운동과 튀르키예의 여성운동은 ‘여성, 생명, 자유’를 들고 끝까지 전진할 것을 결의했다고 여성 해방당(Kadınların Kurtuluşu)¹⁴ 당원 감제 타슈츠(Gamze Taşçı)는 말하고 있다.¹⁵

가장 열악했던 쿠르드 여성운동은 쿠르드인이 있는 모든 곳에서 저항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쿠르드 여성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혁명과 민주주의 사회로의 길을 전진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는 쿠르드 여성운동이 쿠르드인이 있는 곳을 넘어서 튀르키예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다. 혁명의 길을 가는 쿠르

¹⁴ 2011년 2월 25일 설립된 정치조직으로 알려져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http://kadinlarinkurtulusu.org>)’는 현재 막혀있는 상태이다(검색일: 2024. 11. 12.).

¹⁵ “Tuncel: Sisteme ‘dur’ demek isteyenler yan yana gelmeli(툰젤: 정책에 ‘그만’이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은 연대해야 한다)”(Politika, 2024/11/02), <https://politikahaber.com/tuncel-sisteme-dur-demek-isteyenler-yan-yana-gelmeli/>(검색일: 2024. 11. 9.).

드 여성운동가들은 튀르키예 여성운동가들 및 변화를 소망하는 다른 많은 운동가들과 연대하며 새로운 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투고일: 2024년 10월 7일 | 심사일: 2024년 11월 6일 | 게재확정일: 2024년 11월 27일

참고문헌

- 장지향. 2022. “튀르키예, 무슬림 민주주의의 좌절.” 구기연 외. 『아랍의 봄 그 후 10년의 흐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한하은. 2024. “AKP의 여성운동에 대한 태도와 정책을 통해 본 튀르키예의 정치 이슬람 연구: 에르도안 대통령 선출 이후, 여성운동가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지중해지역연구』 26(1): 171-207.
- Al-Ali, Nadje, Isabel Käser. 2022. “Beyond Feminism? Jineolojî and the Kurdish Women’s Freedom Movement.” *Politics & Gender* 18: 212-243.
- Al-Ali, Najde, Latif Tas. 2018. “Dialectics of Struggle Challenges to the Kurdish Women’s Movement.” *LSE Middle East Center*: 5-21.
- Al-Ali, Najde, Latif Tas. 2021. “Kurdish Women’s Struggles with Gender Equality: from Ideology to Practice.” *Third World Quarterly* 42(9): 2133-2151.
- Çaha, Ömer. 2011. “The Kurdish women's movement: A Third-Wave Feminism within the Turkish Context.” *Turkish Studies* 12(3): 435-449.
- Diner, Cagla, Şule Toktaş. 2010. “Waves of feminism in Turkey: Kemalist, Islamist and Kurdish Women’s Movements in an Era of Globalization.” *Journal of Balkan and Near Eastern Studies* 12(1): 41-57.
- Göksel, Nisa. 2018. “Peace and Beyond: Women’s Activist Alliances under Turkey’s ‘Regime of Emergency’.” *Critical Times* 1(1): 149-157.
- Göksel, Nisa. 2019. “Gendering Resistance: Multiple Faces of the Kurdish Women’s Struggle.” *Sociology Forum* 34(1): 1112-1131.
- Keysan, Asuman Özgür. 2019. *Activism and Women's NGOs in Turkey Civil Society, Feminism and Politics*. I.B. Tauris: Bloomsbury Publishing.
- Zihnioğlu, Özge, Saskia Brechenmacher, and Erin Jones. 2024. *On the Front Lines*:

Women's Mobilization for Democracy in an Era of Backsliding,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인터넷 자료〉

- FILIA. 2024.03.08. "KURDISH WOMEN LEAD THE REVOLUTION." <https://www.filia.org.uk/latest-news/2024/3/8/kurdish-women-lead-the-revolution>(검색일: 2024. 6. 10.).
- IGG. 2023/01/22. Rosário Frada. "Kurdish Women: Agents of Change in the Struggle for Identity, Equality and Liberation." <https://igg-geo.org/en/?p=17912&lang=en>(검색일: 2024. 6. 10.).
- MERIP. 2023.09.21. Elif Genc, Anna Özbek, "The Kurdish Women's Movement and Turkey's Transnational 'Femicide'." <https://merip.org/2023/09/the-kurdish-womens-movement/>(검색일: 2024. 6. 13.).

Abstract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KP and Civil Society in Türkiye: Focusing on the Kurdish Women's Movement

Ha-eun Ha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ürkiye, as a secular nation-state, positions itself as an Islamic country aligned with democratic values. Despite the pro-Islamic AKP's (Justice and Development Party) 20-year rule, which has favored Islamic policies, it maintains the rhetoric that democracy and Islamism can coexist, as evidenced by Erdoğan's fifth term in offic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KP and civil society through the lens of the Kurdish women's movement, which represents one of the most marginalized groups—both as an ethnic minority and as women in general. Despite facing dual forms of oppression, the Kurdish women's movement has evolved into a politically representative group that voices its own concerns. Unlike many civil society groups that support the AKP, the Kurdish women's movement is a group that has been repressed by the government, yet it continues to resist. The democratic system, which allows for political party and civil society activities regardless of ideology or ethnicity, facilitated the emergence of Kurdish political parties. Through political movements, the Kurdish women's movement grew and initially, during the early years of AKP rule, benefited from a symbiotic relationship under the AKP's broader platform of supporting all women's movements. This cooperation helped in the development of Kurdish political activism. However, outside institutional frameworks, the Kurdish women's movement

has been increasingly marginalized by the AKP, which promotes gender justice based on nationalist and Islamic values.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KP and the Kurdish women's movement, this study aims to shed light on how the movement has forged an independent path despite systemic repression. This exploration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dynamic between the AKP and civil society in Türkiye.

Keywords | Justice and Development Party (Adalet ve Kalkınma Partisi: AKP), Civil Society, Kurdish Political Movement, Kurdish Women's Movement, Political Islam, Gender Justice